

1836년 燕行과 『鏡悟遊燕日錄』

-韓中 知識人 交流의 內容과 實際-

최 식*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II. 韓中 知識人 交流의 內容과 實際 |
| II. 任百淵과 燕行 | IV. 맺음말 |

< 국문 초록 >

한중 지식인의 교류는 1766년 홍대용이 북경에서 항주의 문인들과 만나 천 애지기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한 이후로 점차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한중 지식인 교류는 여행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과 여행 인편을 매개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더욱이 여행마다 참여할 수 없는 처지라, 여행 인편을 매개한 간접적 교류가 대부분이다.

『경오유연일록』은 당시 한중 지식인 교류의 단면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당시 진림의 언급에 따르면, 조선 사신을 명사로 여기고 교류를 바라는 중국의 상황과 어사의 참주로 조선 사신을 꺼리는 당시 분위기가 고스란히 포착된다. 아울러 조선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혐의와 간극은 없으니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는 당시 중국 지식인이 조선 사신을 명사로 여기고 왕래하며 교분을 맺기를 바라며 각별하게 대우했음을 보여준다.

첫째, 한중 지식인 교류에서 만남을 주선하고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김정희와 강진의 역할이 감지된다. 임백연은 김정희와 강진의 소개로 중국 지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수석연구원 / choicesik@hanmail.net

식인의 존재를 파악하고, 강진과 친분이 있던 강문탁과 진림을 매개로 그들과의 교류를 시도한 셈이다. 특히, 강문탁과 진림 같은 인물은 조선 사신이 중국 지식인과 교류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당시 임백연이 연행 노정에서 교류한 중국 인물은 총 20여 명인데, 앞서 언급한 강문탁과 진림을 제외하더라도 吳筠·姚涵·汪喜孫 등과 친분이 각별하고 교류도 활발하다. 척독과 시문 및 선물의 왕래뿐 아니라 한중 지식인 교류의 내용과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더욱이 『상간편』의 간행에는 黃爵滋·韓韻海 등이 직접 참여한다.

셋째, 당시 연행 인편에 한중 지식인의 척독과 시문 및 선물이 상당수 왕래한 정황이 포착된다. 한양에서 북경으로 가져간 품목에는 글씨(조광진)·문집(『해거시초』, 김양순 시권)·전별시축(「신취미태사잠유시첩」)·편지(안영 편지) 등 다양한 품목이 확인된다. 반면, 북경에서 한양으로 들어온 품목으로 羊腸鐵胎葉·담배·호필·남묵·부채(潘錫恩 글씨, 蔣祥墀 글씨, 홍현주)·글씨(오군 長軸)·문집(『史梅叔詩集』, 『周易闡要』, 『유문청공집』, 『宋學師承記』)·도장(汪喜孫印)·편지와 선물(조병구, 方羲鏞, 洪奭周) 등이다. 이 밖에도 수많은 척독과 시문 및 선물이 다양한 방법으로 왕래되었을 듯하다.

넷째, 『상간편』의 저작과 간행은 한중 지식인 교류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당시 연행 노정에서 수창한 8명의 시 15수씩을 선발하여 총 27제 120수를 북경에서 목판본으로 『상간편』을 간행한다. 당시 황작자는 교정뿐 아니라 小序를 쓰고 한운해는 書籤을 써서 판각에 부친다. 당시 『상간편』 간행은 한중 지식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듯하다. 그러한 연유로 임백연은 본래 판각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애써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는 ‘不知本意, 強生毀譽者, 何足恤也, 亦何足辨也?’는 언급에서 확인된다. 또한 『상간편』은 1833년 冬至使行에서 정사 曹鳳振, 부사 朴來謙, 수행원 崔憲秀가 수창한 연행시집 『燕槎酬帖』과 관련이 깊다. 아울러 『상간편』은 후대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申佐模는 1860년 冬至正使로 연행하는 申錫愚에게 보낸 시에서 “尙書今行, 定有相看續集, 四方傳寫, 想更紙貴.”라고 덕담을 보낸다. 이는 신석우가 신재식의 조카로 연행에서 『상간편』과 같은 저작을 기대한 대목으로 보인다.

【주제어】 任百淵, 燕行, 交流, 『鏡渚遊燕日錄』, 金正喜, 姜潛, 吳筠, 姚涵, 汪喜孫, 『相看編』

I. 머리말

연행록은 오늘날 ‘對中國報告書’와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기존의 연행 지식·정보를 수집·정리하고 새로운 연행 지식·정보를 확대·재생산한다. 18세기를 대표하는 金昌業의 『燕行日記』는 編年體로, 洪大容의 『燕記』는 紀事體로, 朴趾源의 『熱河日記』는 傳紀體로 서술하여 내용과 형식의 개별성을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金景善의 『燕轅直指』도 위 3종의 연행록을 두루 수렴하면서 독자적인 내용과 형식을 추구한다. 그럼에도 연행 지식·정보의 수용과 재생산이란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연행록은 기존 연행 지식·정보를 수집·정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연행 지식·정보를 확대·재생산에 기능한다.¹⁾ 任百淵의 『鏡語遊燕日錄』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경오유연일록』은 건·곤 2책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암문고에 소장되어 있다.²⁾ 표제는 『鏡語行卷』으로, 건은 1836년 10월 16일 한양을 출발하여 12월 20일 북경의 황성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다. 말미에 연행 노정에서 교유한 중국 인물들의 명단을 부기한다. 총 20명에 대한 인물 정보로, 姓名·字·號·官職·居住地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³⁾ 곤은 1836년 12월 21일부터 북경 옥하관에 머물다가 1837년 2월 3일 북경의 황성을 출발하여 3월 16일 한양에 돌아올 때까지의 여정을 기록한다. 또한 말미에 연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명과 인원을 부기하는데, 도합 249명으로 軍官·譯員·伴尙·承吏·中房庫直·奴子·放料軍官 등 43명을 제외하더라도 牌數만 206개에 이르는 규모였다.

1) 최 식, 「연행 지식·정보의 수집·정리 및 확대·재생산-연행록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75, 2018.

2) 『경오유연일록』은 임백연의 친필본이 아니라 후대 필사한 傳寫本으로 판단되며, 근대에 薪菴 金約瑟(1913~1971) 선생이 수집·장서하다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증한 고서이다. 최 식, 「임백연과 《경오유연일록》」, 『국역 경오유연일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7 참조.

3) 凌溥는 『경오유연일록』에 보이지 않고, 북경에서 필담을 나눈 江文鐸과 秦琳은 명단에 빠져 있다. 따라서 이 명단은 후대에 傳寫하는 과정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1836년 연행과 『경오유연일록』은 연행록을 발굴·소개하고 개관하는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⁴⁾ 『경오유연일록』은 풍천 임씨와 소북 또는 인척 등 가문과 당파적 입장을 고취·계승하려는 의도가 포착되고, 당시 한중 지식인 교류의 단면을 상세하게 보여주며, 중국 풍속과 세태의 상세한 기록과 사실적 묘사가 드러나며, 『상간편』과의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닌다.

특히, 1836년 연행과 『경오유연일록』에서 주목할 대목은 한중 지식인 교류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이다. 지금까지 한중 지식인 교류는 金正喜·李尙迪 등을 중심으로 중국 문인과의 교류를 주목하거나,⁵⁾ 葉志誥·汪喜孫·黃爵滋 등을 중심으로 조선 문인과의 교류를 파악한 바 있다.⁶⁾ 대체로 한중 지식인 교류 양상을 尺牘 往來와 詩文 唱酬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그러나 한중 지식인 교류에는 만남을 주선하고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단순한 만남과 필담의 수준을 넘어 척독을 왕래하고 시문을 창수하는 지속적인 교류까지 그 양상도 다양하다. 더욱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직접 교류뿐 아니라 연행 인편을 매개한 간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척독과 시문 및 선물의 왕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고는 1836년 연행과 『경오유연일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중 지식인 교류의 내용과 실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4) 김영진, 「경오유연일록(鏡遊燕日錄)」, 『국학고전 연행록해제』, 한국문화연구소, 2003 ; 「상간편(相看編)」, 『국학고전 연행록해제』, 한국문화연구소, 2003 ; 임영길, 「任百淵의 『鏡遊燕日錄』 연구」, 『中國의 學術·文學과 韓國漢文學』 발표자료집, 2016 ; 최식, 「임백연과 <경오유연일록>」, 『국역 경오유연일록』, 세종대 왕기념사업회, 2017.

5) 藤塚鄰 지음, 藤塚明直 엮음, 윤철규 등 옮김, 『秋史 金正喜 研究: 清朝文化 東傳의 研究』, 과천문화원, 2009 ; 이춘희, 「19世紀 韓·中 文學交流: 李尙迪를 중심으로」, 새문사, 2009가 대표적이다.

6) 박향란, 「葉志誥과 19세기 초 한중 문인의 교류」, 『국문학연구』 33, 2016 : 유정, 「汪喜孫과 朝鮮文人の 往來 尺牘에 대한 고찰」, 『대동한문학』 37, 2012 : 김홍매, 「晚晴 문인 黃爵滋와 조선 연행사」, 『국문학연구』 34, 2016 : 임영길, 「淸 문인 黃爵滋와 朝鮮 문인의 교류-『仙屏書屋初集年記』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64, 2016.

II. 任百淵과 燕行

임백연(1802~1866)은 본관이 豊川이고 자는 溥卿 또는 保卿⁷⁾이며 호는 鏡語이다. 그는 1844년 증광시 병과에 급제하여, 제주관관·동부승지를 역임하고 부호군에 이르렀다. 1836년 동지사의 서장관 鐘臯 趙啓昇(1794~?)의 수행원으로 북경에 다녀와 『경오유연일록』 2책을 남겼다. 또한 당시 연행에 참여한 申在植(1770~1843)·李魯集(1773~?)·조계승·李鳳寧(1793~1871)·崔憲秀·鄭煥杓(1784~?)·임백연·李尙迪(1804~1865) 등 8명의 시 15수씩을 선발하여 총 27제 120수를 북경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相看編』이 있다.

임백연은 竹崖 任說(1510~1591)을 중시조로 하는 竹崖公派의 후손으로, 「統軍亭序」로 중국에까지 명성을 떨친 疎庵 任叔英(1576~1623)이 7대조가 된다. 증조부 巨齋 任珽(1694~1750)은 18세기 초반 소북의 주요 문인으로, 崔成大와 함께 安山の 南人 小北詞壇을 개창한 인물이다. 더욱이 임정의 8형제 가운데 4명이 문과에 급제하고 4명이 진사로 수령을 역임하여, 당시에 '鑄溪八玉'이라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임정의 장인 白閣 姜鏡(1650~1733)은 당시 소북의 영수로, 그의 아들이 豹菴 姜世晃(1713~1723)이다. 이후 在澗 任希聖(1712~1783)은 풍천임씨 문인들을 중심으로 晦園詩社를 결성한 바도 있다.⁸⁾

조부 任希澤은 임정의 庶子로 楚亭 朴齊家(1750~1805)의 누이와 혼인하고, 임백연 또한 강세황의 庶曾孫인 對山 姜潛(1807~1858)과 사돈을 맺는다. 부친 任得常(1767~1842) 또한 진사시에 합격한 이후 정조 연간 검서관 후보로 추천되는 등 학식과 문필이 겸비한 인물이다.⁹⁾

임백연 가문은 연행과 각별한 인연을 맺는다. 먼저 恬軒 任相元(1638~1697)

7) 『상간편』에는 '保卿'으로 되어있다.

8) 강경훈, 「연행록(燕行錄)」, 『국학고전 연행록해제』, 한국문화연구소, 2003 참조.

9) 김영진, 「경오유연일록(鏡語遊燕日錄)」, 『국학고전 연행록해제』, 한국문화연구소, 2003 참조.

은 1687년 冬至謝恩副使로 연행시를 남기는데,¹⁰⁾ 임백연의 6대조 南溪 任量(1626~1671)의 生父인 任善伯(1596~1656)의 손자이다. 또한 강현은 1701년 冬至正使로 『看羊錄』을 남긴다.¹¹⁾ 임정의 죽마고우이자 姨再從인 廣陵居士 南泰良(1695~1752)은 1730년 告誡使의 서장관으로 106제 138수의 연행시를 남겼는데,¹²⁾ 「燕中十六咏」은 임정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¹³⁾ 임정은 1736년 進賀兼謝恩使의 서장관으로 147제 202수 분량의 연행시를 남긴다.¹⁴⁾ 특히 차운시가 많은데, 從祖父 임상원의 연행시에 차운한 작품이 33제 38수이고, 남태량의 연행시에 차운한 시가 23제 27수에 이른다. 「二十四首」 연작시는 남태량의 「연중십육영」을 계승하여 북경의 다채로운 모습을 형상화한다.¹⁵⁾

박제가는 1778년부터 1801년까지 모두 4차례 연행에 참여하고, 『북학의』를 비롯한 많은 저술을 남긴 바 있다. 따라서 임백연은 중국 지식인과의 필담에서 박제가를 거론하며 蔣祥墀(1761~1840)의 안부를 묻는다.¹⁶⁾ 또한 강세황은 1785년 중국 건륭제의 나이 75세, 즉위 50년을 축하하는 천수연에 참석하기 위해 파견된 進賀謝恩兼冬至副使로 연행시 14수를 남긴다.¹⁷⁾ 더욱이 임득상은 1829년 進賀使의 수행원으로 榆關에서 중국 인사와 교류한 적도 있고,¹⁸⁾ 강진은 1833년 進香正使 希谷 李止淵(1777~

10) 任相元, 『恬軒集』 권15 참조.

11) 姜覲, 『看羊錄』, 『연행록전집』 권30 참조.

12) 南太良, 『燕行雜稿』 참조.

13) 강경훈, 「연행잡고(燕行雜稿)」, 『국학고전 연행록해제Ⅱ』, 한국문화연구소, 2003 참조.

14) 任玼, 『巨齋遺稿』 권3 참조.

15) 강경훈, 「연행록(燕行錄)」, 『국학고전 연행록해제Ⅱ』, 한국문화연구소, 2003 참조.

16) 『경오유연일록』 권, 1월 28일. “余問曰: 蔣丹林尙無恙乎? 曰: 然. 今年七十八, 而顏貌如五十許人. 曾經二品, 不仕在家. 子狀元, 今尙書, 孫亦探花. 余曰: 在昔乾隆年間, 我東貞藜朴公, 三入京師, 與當時名碩, 上下角逐. 至有『貞藜稿略』之刊布集內, 有懷人詩四十餘首, 而丹林其一也. 其詩曰: 丹林出竟陵, 詩不染鍾星. 爲人寫便面, 細楷如黃庭. 今聞蔣公尙在, 欣慰欣慰. 朴公卽我家大人之內舅也, 先生幸爲我容蟻, 遂得一拜床下, 則生平景仰之意, 可以少伸也. 雪橋點頭曰: 使丹林聞此語, 亦當延頸容埃, 早晏先路也.”

17) 姜世晃, 『豹菴遺稿』 권2 참조.

18) 『경오유연일록』 권, 12월 12일. “不踰時, 已到榆關二十里. 下馬率馬頭輩, 遍問韓姓人店. 韓姓人, 卽己丑夏家大人留此時所親歎者. 歷問居人, 皆未能詳.”

1841)의 수행원으로 여행시 45수를 남긴다.¹⁹⁾

임백연과 서장관 조계승은 모두 소북 가문으로 인척 관계이다. 조계승의 조부 趙煥은 임정의 동생 任瑗의 사위이고, 부친 趙庚胤은 任希存(1748~1828)의 사위이며, 또 조계승은 任教準과 사돈이 된다. 따라서 임백연은 인척인 조계승의 수행원으로 여행길에 오른다.

1836년 동지사에 동행한 신재식·이노집·조계승·이봉녕·최헌수·정환표·임백연·이상적 등 8명은 한양을 출발하여 북경에 도착하기까지 詩伴이 되어 詩수를 정하고 돌아가며 수창한다. 북경에 도착한 직후, 8명의 시 15수씩을 선발하여 총 27제 120수를 『상간편』이라 명명하고, 黃籥滋(1793~1853)의 서문과 신재식의 발문에다 韓韻海가 書籤을 덧붙여 북경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한다.

정사 신재식은 1826년 동지부사로 여행한 경험이 있어,²⁰⁾ 『상간편』 도처에 그 감회를 피력한다.²¹⁾ 정사의 수행원 이봉녕도 1826년 여행 이후 두 번째 여행이고,²²⁾ 최헌수 역시 1833년 동지부사 朴來謙(1780~1842)의 수행원으로 여행하여 시를 수창한 이후,²³⁾ 3년 만에 다시 여행길에 오른다.²⁴⁾ 부사의 수행원 정환표도 10년 만에 다시 여행에 참여하고,²⁵⁾ 上房乾

19) 김영죽, 「19세기 檢書官 對山 姜潛의 詩자료에 관하여-자료검토와 교류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52, 2013 참조.

20) 『순조실록』 권28, 순조 26년 10월 27일(乙亥) 1번째 기사: 임영길, 〈표2〉 19세기 전반(1801~1849) 朝·淸 문사 교류 일람표(「19세기 전반 여행록의 특성과 朝·淸 문화 교류의 양상」,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7) 참조.

21) 『상간편』, 「生陽館與養石申觀浩共賦」, “昔覽關河勝, 居然十載還.”[翠微]: 「渡鴨淙江」, “十年再于役, 賢勞奈我老.”[翠微]

22) 『상간편』, 「飲餞留別」, “一笑出門萬里情, 十年如昨又斯行.”[汾西]: 「百祥樓」, “十年重到地, 盡日一高亭.”[汾西]: 임영길, 〈표2〉 19세기 전반(1801~1849) 朝·淸 문사 교류 일람표 참조.

23) 『燕榭酬帖』, 『여행록전집 일본소장편』 2 참조. 『연사수첩』은 1833년 동지사행에서 정사 조봉진(曹鳳振), 부사 박래겸, 최헌수가 수창한 여행시집으로, 최헌수의 시는 120여 수이다. 임영길, 〈표2〉 19세기 전반(1801~1849) 朝·淸 문사 교류 일람표 참조.

24) 『상간편』, 「百祥樓」, “十年腰下劍, 一嘯倚雲屏.”[愚山]에는 10년 전 여행을 회상하고 있어, 1826년 신재식의 수행원으로 여행에 참여한 듯하다.

25) 『상간편』, 「紀行」, “遠聞殘角認黃州, 此地經過已十秋.”[黃坡]

糧官으로 동행한 이상적은 김정희의 제자로 12차례나 연행에 참여한 역관이자 시인으로 세 번째 연행이다.²⁶⁾ 반면 부사 이노집과 서장관 조계승, 그리고 서장관의 수행원 임백연은 당시 연행이 모두 초행길이다.

Ⅲ. 韓中 知識人 交流의 內容과 實際

한중 지식인의 교류는 1766년 홍대용이 북경에서 항주의 문인들과 만나 천애지기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한 이후로 점차 확대된다.²⁷⁾ 일반적으로 한중 지식인 교류는 연행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과 연행 인편을 매개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더욱이 연행마다 참여할 수 없는 처지라, 연행 인편을 매개한 간접적 교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오유연일록』은 당시 한중 지식인 교류의 단면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특히, 중국 지식인이 조선 사신을 매우 각별하게 대우한 정황이 드러난다.

“大川店 朱子異는 일찍이 교분이 있으신지요?”

“이름은 들었지만 아직 교류는 없습니다.”

“근래 주자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주자이가 병을 핑계대고 훗날을 기다리겠다고 하니 이는 저를 소외하는 게 아닐런지요?”

“우리들은 조선 사신이 올 때마다 모두 한번 名士를 얻어 교류하는 걸 배고프고 목마른 것처럼 여깁니다. 조선 사람에게 주자이가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중략)…

“지금 御史의 參奏가 매우 많아, 貴處를 왕래하는데 불편하고 함께 가서 교분을 맺는 사람도 많지만 각각 피하고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사의 참주를 운운한 것은 분명 邦禁이 있어서입니까?”

“금지하는 조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재상이 외국인 편지와 과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정의 의론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차츰

26) 임영길, <표 2> 19세기 전반(1801~1849) 朝·淸 문사 교류 일람표 참조.

27) 최 식, 『韓中 知識人 交流의 記錄 洪大容과 嚴誠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0, 2015.

서로 숨기고 꺼리게 되었을 뿐이지 금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조선은 다른 나라와 다른데 어찌 혐의와 간극이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제가 마땅히 대신하여 경백창·황해화·탁운 등 여러 사람을 도모해 보지요.”²⁸⁾

임백연은 주자이에게 편지를 보내 만남을 학수고대하는데, 그는 병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을 직면한다. 진림은 조선 사신을 명사로 여기고 교류를 바라는 중국 지식인의 상황과 어사의 참주로 조선 사신을 꺼리는 당시 분위기를 전달한다. 아울러 조선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혐의와 간극은 없으니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진림의 언급은 당시 중국 지식인이 조선 사신을 명사로 여기고 왕래하며 교분을 맺기를 바라며 각별하게 대우했음을 보여준다.

첫째, 한중 지식인 교류에서 만남을 주선하고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김정희와 강진의 역할이 감지된다.

김정희는 1809년 冬至兼謝恩使行의 副使인 부친 金魯敬(1766~1840)을 따라 연행한 이후로 한중 지식인 교류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18세기 후반 홍대용이 북경에서 향주의 문인들과 교류한 이후, 이덕무·박제가·박지원·유득공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과 흡사하다. 또한 이상적은 12차례 연행에 참여한 역관으로 당시 한중 지식인 교류에서 메신저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 아침에 상사께 인사를 드렸더니帖 하나를 펴 보여 주며 말했다.

“이것은 우리 洛社의 여러 분이 나를 전별하며 지은 것입니다. 지금 파발 편에 첩을 만들어서 보내왔으니, 매우 성대한 일이지요. 내가 中州에 가지고 가서 비평과 서문과 발문을 두루 구할까 합니다.”

28) 『경오유연일록』 권, 1월 11일. “余曰: 大川店朱子異, 曾有交好否? 曰: 聞而未交. 余曰: 頃寄書於子異, 子異書以疾爲解容. 俟他日云云, 莫是踈外我耶? 秦笑曰: 我輩人, 每於東使來, 皆欲一得名士爲交, 甚如飢渴. 甚如東人, 朱豈他腸哉? …(중략)… 又曰: 目下御史參奏甚多, 不便與貴處往來, 同來結交者廣矣, 各有避忌耳. 余曰: 御史參奏云者, 明有邦禁耶? 曰: 非有禁條. 因年前一宰執得一外國人書與果品, 朝議以爲不可. 厥後稍相斂諱故耳, 非有令禁. 況貴國與他別, 豈有嫌間乎? 一兩日間, 僕當代謀於慶·黃·卓諸人.”

펼쳐 보니 情자 운으로 술자리서 전별하면서 쓴 詩軸이었다. 階菊 李公·石厓 趙公[趙萬永]·雲石 趙公[趙寅永]·梨垞 洪公[洪稚圭]·秋史 金公[金正喜]·黃山 金公[金道根]·彝齋 權公[權敦仁]·翠微 어른[신재식]의 시인데, 황산의 작품 2수는 추사가 쓴 것이다.²⁹⁾

㉔ 염암이 말했다. “들으니, 秋史 金侍郎[김정희]이 『海東金石錄』 몇 권을 집성하여 古蹟이 많다고 합니다. 매번 한번 희귀한 책을 감상하고 아울러 널리 고증하는 바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방법이 없었지요. 바라건대, 형이 조선으로 돌아간 후에 저를 위해 마음을 전하고 古紙 몇 본 얻어 보여 주시겠습니까?”³⁰⁾

㉕ “秋史[김정희]는 성품이 단정한 듯하고, 山泉[김명희]은 가장 효성스러우며, 權彝齋[권돈인]는 활달한 듯합니다. 추사와 紫霞[신위]는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입니까?”³¹⁾

㉖ 신재식이 한양의 낙사에서 여러 친구들에게 받은 餞別詩軸을 임백연에게 소개하는 대목이다. 신재식은 중국으로 가져가 서문과 발문뿐 아니라 비평까지 받으려 했는데, 바로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申翠微太史暫遊詩帖」이다.³²⁾ 이 시축에 김정희는 시도 짓고 김유근의 작품을 직접 쓴 바 있다. 앞서 임백연은 김정희에게 朱鶴年(1760~1834)의 아들 주자이의 명성을 듣고 오홍주를 보내서 편지를 전한다.³³⁾ 일찍이 주학년은 1810년 북경의 전별연에서 김정희에게 「秋史餞別圖」를 그려준 이후, 조선에 그의

29) 『경오유연일록』 권, 11월 13일. “此吾洛社諸公餞我時所作. 今於撈路作帖以送, 甚盛事也. 吾欲携入中州, 遍求批評字跋也. 披視則青字韻飲餞軸, 而階菊李公·石厓趙公·雲石趙公·梨垞洪公·秋史金公·黃山金公·彝齋權公及翠微丈詩, 而黃山之作二首帖, 則秋史所書也.”

30) 『경오유연일록』 근, 1월 14일. “恬菴曰: 聞秋史金侍郎集『海東金石錄』幾卷, 多有古蹟. 每欲一賞希珍, 兼資博攷, 而未有徑蹊. 幸兄東轅後, 爲我致意, 得古紙幾本相示否?”

31) 『경오유연일록』 근, 2월 1일. “曰: 秋史性似端方, 山泉最孝, 權彝齋似開展. 秋史·紫霞, 何長何短?”

32) 『간송문화』 71,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06 참조.

33) 『경오유연일록』 근, 1월 4일. “朝使上判事馬頭吳興周, 付書於朱子異. 子異即朱野雲之子, 年方少而名甚盛. 金秋史屢言其聲譽. 故欲與過從, 先以書通矣.”

명성이 알려지게 된다. 당시 조선 사신은 주학년을 매개로 중국 지식인과 소통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³⁴⁾ 임백연도 김정희를 통해서 주자이의 존재를 파악한 것으로 추정되며, 임백연은 진림과의 필담에서도 주자이의 존재를 거론한다.³⁵⁾ ㉔ 요함이 김정희의 『海東金石錄』를 언급한 대목으로, 이는 최근에 발굴된 『海東碑攷』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海東碑攷』는 『禮堂金石過眼錄』에 누락된 금석학 자료를 수록하여 금석학의 정수가 담긴 책이다.³⁶⁾ 따라서 요함이 김정희가 집성한 금석학 자료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정황이 드러난다. 이후 요함은 김정희가 부탁한 羊腸鐵胎葉을 시장에서 구해놓는다.³⁷⁾ 당시 이상적이 羊腸鐵胎葉을 요함에서 부탁한 것이라 추정이 가능하다. 조선 사신이 12월 20일에 북경에 도착한 후, 이상적은 요함을 방문하여 부탁하고 이때에 비로소 시장에서 구한 셈이다. ㉕ 왕희손이 김정희·김명희·권돈인의 성품을 평하고, 김정희와 신위의 장단을 질문한 내용이다. 김명희는 1822년 冬至正使 김노경을 따라 연행하고, 권돈인은 1819년 冬至使行的 서장관으로, 1836년 進賀兼謝恩正使로 연행하며, 신위도 1812년 陳奏兼奏請使行的 서장관으로 연행한 바 있다. 따라서 왕희손도 조선 지식인의 존재를 파악하고 임백연에게 언급한 대목이다. 이후 왕희손은 ‘汪喜孫印’을 음각한 黃石小方印을 임백연에게 주며, 이전에도 김정희와 권돈인에게 인장을 선물한 사실을 토로한다.³⁸⁾ 이는 왕희손이 김정희와 권돈인에게 자신의 인장을 선물할 정도로, 친분도 두텁고 교류가 빈번했음을 의미한다.

34) 임영길, 「19세기 전반 연행록의 특성과 朝·淸 문화 교류의 양상」,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7, pp.112-117 참조.

35) 『경오유연일록』 곤, 1월 11일 참조.

36) 박철상, 「추사 김정희의 금석학연구: 역사고증적 측면을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논문, 2011 : 「조선시대 금석학 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2014 : 『나는 옛것이 좋아 때론 깨진 빗들을 찾아다녔다: 추사 김정희의 금석학』, 너머북스, 2015 참조.

37) 『경오유연일록』 곤, 1월 18일. “恬菴曰: 秋史託求羊腸鐵胎葉數種, 爲其舊件已敗, 欲修改也. 弟已求之市中耳.”

38) 『경오유연일록』 곤, 2월 2일. “甘泉曰: 不妨不妨. 秋史·彝齋處, 亦皆有僕之名字印章. 就賢弟所嘗愛畫譜書帖, 印此爲雅, 亦不害爲萬里懷人之資.”

주지하듯이 강진은 1833년 進香正使 李止淵의 수행원으로 여행하여 여행시 45수를 남긴 바 있고, 임백연과는 사돈을 맺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이다. 임백연은 여행에 앞서 강진을 만나 중국 지식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자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밤에 天順局에 가서 江文鐸과 필담하였다. 강문탁은 바로 姜對山[姜澗]과 절친한 사이로 나이는 마흔을 넘었고 단정하고 수려해서 사랑할 만하여 서로 마주하니 매우 즐거웠다. 아울러 卓秉愷·卓秉恬·慶伯蒼·李華祺·史梅裳·黃海華 등 여러 사람의 소식을 물었다. 강문탁이 海帆 탁병염과 그 아들 卓樑 및 경백창은 집에 있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일 때문에 외지에 있으며, 사매상은 史梅叔으로 개명하고 새로 간행한 詩集 몇 권이 있다고 하였다.³⁹⁾

㉡ “사매상과 황해화는 제가 본국에 있을 때부터 우레와 같은 명성을 들었습니다. 선생을 통해서 한번 정성을 드러내면 유쾌할 것인데 혹시 저를 위해서 먼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史襄齡梅裳은 그 사이 개명하여 史密이고 자는 梅叔인데, 지금 東陵 容大人의 집에 살며 글씨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있습니다. 오직 慶伯蒼雨香은 북경에 있으니, 경백창은 제가 마땅히 대신해서 힘써 보겠습니다.”

...(중략)...

“황해화는 근래에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요?”

“황해화는 舉人인데 풍류가 있는 名士로 詩文에 정통하며 湖北 漢陽人으로 경백창의 숙소에 머물며 그 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백창은 현재 刑部主政으로 있는데 蔭生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李華祺曉邨은 근래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효촌은 이미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는 그림을 잘 그리지요.”

“효촌의 그림은 일찍이 姜對山[姜澗]을 통해서 얻어 보았습니다. 제가 비록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이미 그 훌륭한 솜씨에 감복하였고, 대산도 극구 칭찬하였습니다.”

39) 『경오유연일록』 근, 1월 4일. “夜往天順局，與江文鐸筆談。江卽姜對山所善者，而年過四十，端秀可愛，相對甚驩。仍問卓秉愷·秉恬·慶伯蒼·李華祺·史梅裳·黃海華諸人消息。江言卓海帆秉恬及其子樑及慶伯蒼在家，餘皆有事在外，而梅裳改名梅叔，有詩集數卷新刊云。”

“강대산은 몇 년 전 사신으로 왔던 이름이 姜潛입니까? 내 동생 仙居는 江振甫(江文鐸)와 매우 친밀해서 피차간에 서신이 있습니다.”

…(중략)…

“황해화·사매숙의 시와 그림과 글씨를 얻어 볼 수 있을까요?”

진림은 붓으로 벽 위의 그림 병풍 하나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사매숙의 솜씨랍니다.”

대개 산수화를 그린 병풍인데 가는 붓으로 그린 그림인데다 낙관이 있어 그 훌륭한 솜씨를 알 수 있었다.

“사매숙은 詩本이 있는데 지금 판각하였습니다. 한 책이 5권인데 紋銀 한 냥으로 현재 유리창 책방에서 팔고 있습니다. 시집은 개명한 까닭에 내일 가져와서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⁴⁰⁾

㉠ 임백연이 천순국에서 강문탁과 필담한 내용이다.⁴¹⁾ 강문탁은 강진과 절친한 사이로, 임백연은 탁병암·탁병염·경백창·이화기·사매상·황해화 등의 소식을 묻고, 강문탁은 그들의 근황을 상세하게 전한다. ㉡ 천성국에서 임백연이 진림을 만나 필담한 대목으로, 앞의 내용과 흡사한 질문을 한다. 진림은 강문탁보다 보다 상세한 근황을 전할 뿐 아니라, 사매숙이 그린 병풍과 최근에 간행한 『사매숙시집』 5권까지 소개한다. 이후 진림은 임백연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매숙시집』 5권을 전달한 바 있다.⁴²⁾

40) 『경오유연일록』 근, 1월 11일. “余曰: 史梅裳·黃海華, 自在敝邦, 聞名如雷. 欲因先生, 得一輪欸爲快, 倘爲我先容耶? 秦曰: 史襄齡梅裳, 其間改名, 爲密字梅叔, 而現住東陵容大人處. 書帖先生. 唯有慶伯蒼兩香在京, 慶則僕當代謀之耳. … 余曰: 黃海華近住何處? 曰: 海華舉人, 翩翩盡名士, 精於詩文, 湖北漢陽人. 就在伯蒼所, 教讀其弟. 伯蒼現在刑部主政, 因係蔭生, 不願就事. 余曰: 李華祺曉邨近做何狀? 曰: 曉邨業已回里, 曉邨善畫. 余曰: 曉村手畫, 曾因姜對山得見. 僕雖不能畫, 已服其善, 對山亦亟稱之. 秦曰: 姜對山得非往年使來時名潛者乎? 與舍弟仙居, 與江振甫甚驩, 彼此有書信. …(중략)… 余曰: 海華·梅叔詩若畫若筆, 可得見乎? 秦以筆指壁上一畫障曰: 此是梅叔手法. 盖山水障細畫有欸識, 可知其良手也. 秦曰: 史有詩本, 現亦刻就. 每部五本, 紋銀一兩, 現在琉璃廠書坊出賣. 詩本上有易名之故, 明日取來一觀可知.”

41) 金景善의 『燕轅直指』에 옥하관 밖에 위치한 ‘江振甫鋪’에서 중국 지식인과 만나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동일한 인물로 판단된다. 따라서 ‘天順局’은 ‘江振甫鋪’를 가리킨다.

42) 『경오유연일록』 근, 1월 12일. “夕秦蘊山琳貽書, 送『史梅叔詩集』五卷.”

강문탁과 진림은 모두 강진이 1833년 여행에서 교류한 인물로, 임백연은 강진의 소개로 북경에서 수소문해서 방문한 셈이다. 더욱이 임백연이 소식을 탐문한 중국 지식인도 실제로 강진이 여행에서 교류한 인물과 동일하다.⁴³⁾ 따라서 임백연은 강진을 통해서 중국 지식인의 존재를 파악하고, 강진과 친분이 있던 강문탁과 진림을 매개로 그들과의 교류를 시도한다.

임백연의 사례로 본다면, 김정희와 강진의 소개로 중국 지식인의 존재를 파악하고, 강진과 친분이 있던 강문탁과 진림을 매개로 그들과의 교류를 시도한 셈이다. 특히, 강문탁과 진림 같은 인물은 조선 사신이 중국 지식인과 교류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당시 임백연이 여행 노정에서 교유한 중국 인물은 총 20여 명인데, 앞서 언급한 강문탁과 진림을 제외하더라도 吳筠·姚涵·汪喜孫 등과 친분이 각별하고 교류도 활발하다. 특히, 『상간편』의 간행에는 黃爵滋·韓韻海 등이 직접 참여한다.

먼저, 오균은 1월 12일 보령국으로 이노집과 조계승을 만나러 찾아오고, 그 자리에 임백연이 동석하면서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다. 여러 차례 만나 필담하고 척독을 왕래하고 시문도 창수한다.

㉑ 필담하는 사이에 설교는 「海天虛舟圖」의 제화시를 부탁하였다.⁴⁴⁾

㉒ 설교가 일찍이 근래에 지은 詩卷을 보이며 서문과 발문을 부탁하였다. 서문은 상사 취미 어른에게 받들어 부탁하고 나는 小跋을 지어 시권의 말미에 부쳤다.

...(중략)...

그가 시령 위의 6책 1질의 책을 뽑아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다.

“이것은 우리 선조가 저술한 『周易纂要』입니다. 이것은 단지 1부이니 두 분 가운데 누구에게 드릴까요?”

...(중략)...

설교가 부끄러운 낯빛을 하며 내게 사과하며 말했다.

43) 임영길, <표 2> 19세기 전반(1801~1849) 朝·淸 문사 교류 일람표 참조.

44) 『경오유연일록』 근, 1월 16일. “談次, 雪橋請「海天虛舟圖詩」.”

“제가 응당 동향 사람에게 널리 구해서 1부를 봉정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부채 2개를 꺼내는데, 하나는 侍郎 潘錫恩의 글씨로 내게 주었고, 다른 하나는 尙書 蔣祥墀의 글씨로 황과에게 주며 말했다.

“이 부채는 나를 위해 金健翁侍郎[金陽]께 전해주시시오.”

황과가 건옹의 詩卷으로 설교의 비평을 부탁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었던 것이다.

…(중략)…

설교는 또 남창(南窗)[李雲衡]과 호관(壺觀)[安泳]의 안부는 어떠한지 물었다.⁴⁵⁾

□ 임백연이 이봉녕·정환표와 함께 오균의 처소를 방문하여 필담한다. 당시 오균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 「海天虛舟圖」의 제화시를 임백연에게 부탁한다. 오균이 편지를 보내와 약속을 정하고, 임백연과 정환표는 답장과 함께 楹聯·壁帖을 써서 오균과 손숙에게 보낸다.⁴⁶⁾ 이후 임백연도 오균에게 편지뿐 아니라 부채와 환약을 선물로 보내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⁴⁷⁾ □ 일찍이 오균은 조선 사신 일행에게 근래에 지은 詩草 1권을 보내 서문과 발문을 부탁한 바 있다.⁴⁸⁾ 당시 신재식은 서문을 쓰고 임백연은 小跋를 지어 보낸다. 또한 오균은 필담하는 자리에서 선조가 저술한 『周易纂要』 6책 1질을 꺼내어 정환표에게 선물하고 임백연은 나중에 드린다고 약속한다. 아울러 潘錫恩 글씨의 부채는 임백연에게 주고, 蔣祥墀 글씨의 부채는 정환표에게 주며 김양순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한다. 당시 정환표가 김양순의 詩卷을 가져와 오균에게 비평을 부탁한 것과 관련이 깊다.

45) 『경오유연일록』 근, 1월 28일. “雪橋曾以近作詩卷, 投示求序跋. 序則推重於上使翠微丈, 而自作小跋題卷尾. … 抽架上六冊一帙書, 置卓上曰: 此吾先祖所述『周易纂要』也. 此只一部, 兩位誰贈? …(중략)… 雪橋色若有媿, 謝余曰: 吾當遍求同鄉人, 奉呈一部矣. 出二扇, 一潘侍郎錫恩筆以授余, 一丹林蔣尙書祥墀筆授黃坡曰: 此幸爲我屬金健翁侍郎也. 黃坡以健翁詩卷, 屬雪橋批評, 故有此贈也. … 雪橋又問: 南窗[李雲衡號]·壺觀[安泳號], 安否何如?”

46) 『경오유연일록』 근, 1월 18일. “雪橋送人致書, 約日再會. 余與黃坡, 裁書答之, 書楹·聯壁帖八對, 分與雪橋·虞卿, 爲踐前日求書之意也.”

47) 『경오유연일록』 근, 1월 22일. “早朝貽書吳雪橋, 送扇丸等屬, 歸則有答在案矣.”

48) 『경오유연일록』 근, 1월 13일. “歸館, 雪橋齎送近作詩草一卷, 請諸人序跋.”

오균은 이운형과 안영의 근황을 물을 정도로, 조선 지식인과 교류가 활발한 인물이다. 조선 사신 일행이 북경을 떠나기 직전, 오균은 전선과 함께 옥하관으로 찾아와 작별한다. 오균은 직접 쓴 두 폭의 長軸 가운데, 하나는 정환표에게 선물로 주고, 다른 하나에다 담배 2갑·호필·남묵과 『周易闡要』 1질을 임백연에게 선물한다. 『周易闡要』는 앞서 선물하기로 약속한 말을 실천한 셈이다.⁴⁹⁾

다음으로 요함은 김정희의 금석학 자료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이상적의 부탁으로 양장철태업을 시장에서 구해서 전달한 정도로 조선 지식인의 동향과 교류에 매우 민감하다. 그는 임백연에게 호랑이 어금니로 만든 이쑤시게와⁵⁰⁾ 方香과 色箋 한 상자를 선물한 적이 있고,⁵¹⁾ 임백연은 학질로 고생하는 그에게 청심환을 선물할 정도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한다.⁵²⁾

㉑ 염암 형제는 여러 번 李石友[李時敏]의 안부를 물었는데, 석우는 古東 李尙書[李翊會]의 아들이다. 예전에 교분을 맺고 편지로 안부하였는데 지금은 없다고 하였다.⁵³⁾

㉒ "오늘 새벽 游荷 趙公[趙秉龜]과 方蘭生[方羲鏞]에게 보낸 편지와 선물은 또한 받았습니까?"

...(중략)...

"洪公成伯[洪爽周]에게 보내는 편지와 선물은 이미 꾸러서 상자 속에 넣었고, 유하에게 전해 주기를 부탁하니, 형이 전해 주신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海居

49) 『경오유연일록』 곤, 2월 2일. "卽展示二幅長軸, 雪橋自作自書者, 一幅受黃坡. 又有南茶二匣, 盛以銀色紙壺, 配以湖筆·南墨及『周易闡要』一帙. 虞卿亦以扇, 自書別章以贈."

50) 『경오유연일록』 곤, 1월 14일. "話間, 恬菴解嘲問所佩贈余, 光氣燭人徹心. 晶燧似水晶, 而有紅暈, 體長而圓, 大如小兒拳. 有孔穿一紅絲, 絲懸一玳瑁曲鐸. 余曰: 此何名何用? 恬菴曰: 此乃銜紅寶石. 又以筆頭指鐸子曰: 此虎牙剔齒具. 李藕船謂余曰: 此中國希寶無品. 貝勒方以此, 飾帽上頂子, 其大如是, 價亦不些云."

51) 『경오유연일록』 곤, 1월 16일. "歸館, 恬菴有書, 來送方香及色箋一函."

52) 『경오유연일록』 곤, 1월 18일. "余以清心十丸, 分與姚·韓. 恬菴曰: 此丸療疾如神, 乞者甚多, 大功德也. 市中者大不佳. 恬菴方患疴, 日晚以疴作穉穉."

53) 『경오유연일록』 곤, 1월 14일 참조.

[洪顯周]가 부채 열 개를 보내 열 사람의 그림을 부탁하였는데, 길에서 하나를 잃어버려 지금 烏木扇으로 배상하여 보냅니다. 도성 문 안에 글씨와 그림에 능한 자는 적지 않지만 구하려면 어렵습니다. 더구나 글씨와 그림에 빼어난 열 명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이름은 각자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⁵⁴⁾

㉑ 요함이 이시민의 근황을 묻는 대목으로, 예전에 교분을 맺고 편지로 왕래하다가 근래에 소식이 끊어진 상황이다. 이시민은 1834년 연행에 참여하여 요함과 교류한 적이 있어,⁵⁵⁾ 이후로 이시민과 요함이 편지를 왕래한 정황이 드러난다. ㉒ 요함은 조병구와 방희용에게 보낸 편지와 선물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임백연에게 묻는다. 일찍이 조병구는 1829년 冬至使行의 서장관으로 연행한 바 있고, 요함이 조병구와 나란히 방희용을 언급한 점을 고려한다면, 방희용도 당시 연행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홍석주에게 보내는 편지와 선물도 조병구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한다. 아울러 홍현주가 부탁한 부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곁들인다. 이는 요함과 조병구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왕희손은 1월 13일 中和局의 龍泉菴에서 만난 이후, 서로 여러 차례 만나 필담하며 척득 왕래와 시문 창수까지 지속한다. 왕희손은 1826년 冬至使行의 부사 신재식과 수행원으로 따라간 이봉녕과는 이미 교류한 정황이 드러난다. 따라서 신재식과 이봉녕의 주선으로 조선 사신 일행과 왕희손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㉓ 두 차례나 春風을 만났건만 맥맥히 말을 나누지 못하니 내 소회가 어떠하겠습니까? 근래 집사께서 이곳에서 벼를 구한대도 펄럭임이 마치 놀란 기러기

54) 『경오유연일록』 곤, 1월 18일. “恬菴曰: 秋史託求羊腸鐵胎葉數種, 爲其舊件已敗, 欲修改也. 弟已求之市中耳. … 恬菴曰: 今晨送寄游荷趙公及方蘭生信物, 亦收否? …(중략…) 恬菴曰: 上洪公成伯信件, 已裝入匣中, 囑游荷轉遞, 吾兄可致到是幸. 海居以十扇, 求各人畫, 因途上失其一, 今以烏木扇賠送耳. 都門能書畫者頗不少, 而求之則難. 況安有十人能工絕耶? 所以一人畫之, 名字各書, 爲好耳.”

55) 임영길, <표 2> 19세기 전반(1801~1849) 朝·淸 문사 교류 일람표 참조.

와 같고 보니, 만난 바가 대개 적을 것입니다. 듣자니, 그대가 시 짓기를 좋아한다니, 2백년 이래로 詩格이 자주 변해, 근래에 袁·趙[袁枚·趙翼]가 비록 능히 시인을 매료시킬 만하나, 살펴보면 시격이 그닥 높지 않습니다. 吳蘭雪[吳嵩梁]은 才筆이 세상에 빼어나지만 단련함이 순정치 않고, 陸祁生과 安章宅은 才力이 부족하며, 孫淵如[孫星衍]는 詩筆이 매우 공교로운데도 사람들이 그저 경학과 고문사료만 허락합니다. 洪稚存[洪亮吉]은 시가 몹시 거친데다 시비가 전도되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시대의 여러 大家 밖에서 구한다면, 오직 吳野人[吳嘉紀]·歐陽澗東[歐陽紹谷]이 一家言을 이루었습니다. 삼가 안목 있는 이가 그 온축한 바를 살펴보고 여러 사람에게 하나하나 물어보시면 다행이겠 습니다.⁵⁶⁾

☐ 또 五言古詩 한 편을 읊고 관소로 보내, 삼사에게 이별을 청하였다. 가져 온 4책 1질의 책을 주며 말했다.

“보검은 열사에게 준다 하니, 이 책은 오직 현제에게 줄 만합니다.”

즉시 붓을 당겨 책의 표지에 이렇게 썼다.

“劉文清公集 孟滋가 드림, 鏡渚가 소장.”

…(중략)…

“『상간편』의 여러 작품은 각각 장점이 있지만 전부 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작(大作)의 경우는 제가 1자로 心評하였는데, 어떠합니까?”

“듣고 싶습니다.”

“맑더군요.”

…(중략)…

“內地의 2백년간 도학종파를 말씀 드리지요. 徽州는 주자를 받들고, 紹興은 양명을 받들며, 河南과 陝西는 주자와 양명이 반반이며, 福建은 주자를 받들고, 直隸는 주자와 양명이 반반입니다. 吾郡과 寶應은 주자를 받들고, 泰州는 양명을 받들며, 江西는 주자를 받들입니다.”

…(중략)…

56) 『경오유연일록』 곤, 1월 24일. “兩度春風 脉脉不語 我懷如何? 比者執事 求友于茲 翩若驚鴻 所遇蓋寡 聞足下喜作詩 二百年來 詩格屢變 近袁·趙雖能感詩人 究之詩格不高 吳蘭雪才筆絕世 鍛鍊未醇 陸祁生·安章宅 才力不足 孫淵如詩筆甚工 人第以經學古文詞許之 洪稚存詩甚龜率 且傾倒是非 言不足信 求之一代於諸大家外 惟吳野人[嘉紀]·歐陽澗東[紹谷]成一家言 伏幸鑒識方歷聞所蓄 條問諸人.”

“『宋學師承記』 1책을 강남에서 가져왔는데 응당 보내겠습니다.”⁵⁷⁾

㉑ 왕희손이 임백연에게 보낸 척독이다. 그는 200년 이래 시격의 변화와 당시 문인들에 대한 품평을 덧붙인다. 袁枚·趙翼을 시작으로, 吳嵩梁·陸禔生·安章宅·孫星衍·洪亮吉 등을 차례대로 장단을 평하고, 오직 일가를 이룬 인물로 吳嘉紀·歐陽紹洛를 추천한다. 또한 왕희손이 「수경도시」를 임백연에게 부탁한 대목이다. 임백연은 부체에 글을 부탁하고, 칠언율시 한 수로 보답한다.⁵⁸⁾ 이는 한중 지식인 교류에서 선물과 척독 뿐 아니라 시문도 서로 주고받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㉒ 왕희손이 『유문청공집』의 표지에 손수 ‘劉文清公集, 孟滋貽, 鏡語藏.’을 써서 임백연에게 선물하고, 『상간편』에 수록된 임백연의 작품을 ‘청[淸]로 품평하며, 주자학과 양명학에 대한 중국의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또한 『宋學師承記』 1책을 선물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그가 임백연의 작품을 품평한 대목에서 『상간편』을 탐독한 정황이 감지된다. 아울러 왕희손이 ‘汪喜孫印’을 음각한 黃石小方印을 임백연에게 주며, 화보나 서첩에 인장을 찍으면 고상할 뿐 아니라 인장을 보면서 자신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한 내용이다. 당시 임백연은 감사한 마음을 부체에 증별시를 쓰고, 함죽선과 기타 선물로 사례한다.⁵⁹⁾ 왕희손은 임백연을 매우 각별하게 대우한 듯하다. 이는 그가 신재식에게 보낸 편지에서 임백연을 극구 칭찬한 사실과 무관하

57) 『경오유연일록』 근, 2월 1일. “又賦五古一篇, 送館中, 請別於三使. 以所携四冊一帙, 書贈之曰: 寶劔贈與烈士, 此集唯賢弟可贈. 卽援筆題其卷面曰: 劉文清公集, 孟滋貽, 鏡語藏. …(중략)… 曰: 『相看編』諸作, 各有其長, 不敢盡評, 而至如大作, 僕有一字心評, 如何? 曰: 願承教. 曰: 淸矣. …(중략)… 汪曰: 願以內地二百年道學宗派奉告. 徽州宗朱子, 紹興宗陽明, 河南·陝西, 朱王參半, 福建宗朱子, 直隸朱王參半, 吾郡·寶應宗朱, 泰州宗王, 江西宗朱子. …(중략)… 又曰: 有『宋學師承記』一書, 江南寄來, 當奉寄矣.”

58) 『경오유연일록』 근, 1월 24. “席將散, 汪以『授經圖詩』, 要余題後. …(중략)… 以一扇囑孟慈書, 孟滋屢辭始許.”

59) 『경오유연일록』 근, 2월 2일. “余又獨往, 甘泉相見甚喜. 談次, 手贈黃石小方印, 陰刻汪喜孫印四字. …甘泉曰: 不妨不妨. 秋史·彝齋處, 亦皆有僕之名字印章. 就賢弟所嘗愛畫譜書帖, 印此爲雅, 亦不害爲萬里懷人之資. 余乃收之, 以一扇書贈別詩, 兼以合竹一扇及丸劑筆墨硯數種謝之.”

지 않다.⁶⁰⁾ 따라서 김정희·권돈인에게 자신의 인장을 선물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백연을 극진히 대우한 셈이다.

셋째, 당시 연행 인편에 한중 지식인의 책독과 시문 및 선물이 상당수 왕래한 정황이 포착된다. 이는 홍대용이 1865년 연행 이후 중국 지식인과 왕래한 6첩의 서찰첩을 모아 놓은 『中士寄洪大容手札帖-중국 선비가 홍대용에게 보낸 편지와 시문』이 대표적인 경우이다.⁶¹⁾ 홍대용은 연행 인편을 매개로 중국 지식인과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한 바 있다. 따라서 연행을 통한 직접적인 교류보다 연행 인편을 매개한 간접적 교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1836년 연행에도 간접적인 교류가 포착되고, 『경오유연일록』에서 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양에서 중국의 북경으로 가져간 책독과 시문 및 선물은 다음과 같다.

㉠ 상사는 책상머리에 길이가 거의 10자 되는 큰 종이 2장을 펼쳐 보였다. 한 쪽에는 ‘戰’ 자가 쓰여 있고, 다른 한 쪽에는 ‘翼’ 자가 쓰여 있었는데, 읍인 曹匡振의 글씨라고 하였다. 상사는 웃으면서 말했다.

“중원으로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또한 그 드물고 진귀함을 자랑할 만하다.”⁶²⁾

㉡ 정오에 上房으로 가니 州尹 塔西 어른(林來謙)이 또한 자리에 있었다. 마침 서울에서 보낸 송별시와 『海居詩鈔』 여러 권이 있어, 서로 함께 책을 펼쳐 살펴보았다.⁶³⁾

㉢ 아침에 상사께 인사를 드렸더니帖 하나를 펴 보여 주며 말했다.

“이것은 우리 洛社의 여러 분이 나를 전별하며 지은 것입니다. 지금 파발 편

60) 『경오유연일록』 권, 1월 22일. “上使與汪孟滋·姚恬菴·秋田同坐, 見余至, 孟滋·恬菴, 驚起握手, 恨其日晚將歸. 恬菴有宿約於今日矣, 責我不踐言. 余乃深謝, 再留約以廿八. 孟滋日昨致書於翠微上使, 獎余甚, 書屢幅不止.”

61) 『中士寄洪大容手札帖-중국 선비가 홍대용에게 보낸 편지와 시문』, 송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2016.

62) 『경오유연일록』 권, 10월 27일. “仍於案頭, 展示二大紙, 長幾十尺. 一幅書戰字, 一幅書翼字, 云是邑人曹匡振筆. 公笑謂曰: 携入中原, 亦可詫其稀珍也.”

63) 『경오유연일록』 권, 11월 12일. “午往上房, 主尹塔西丈亦在座. 適有自京來驢章及『海居詩鈔』數卷, 相與繙閱.”

에 첩을 만들어서 보내왔으니, 매우 성대한 일이지요. 내가 中州에 가지고 가서 비평과 서문과 발문을 두루 구할까 합니다.”

펼쳐 보니 情자 운으로 술자리서 전별하면서 쓴 詩軸이었다. 階菊 李公·石厓 趙公[趙萬永]·雲石 趙公[趙寅永]·梨垞 洪公[洪稚圭]·秋史 金公[金正喜]·黃山 金公[金道根]·彝齋 權公[權敦仁]·翠微 어른[신재식]의 시인데, 황산의 작품 2수는 추사가 쓴 것이다.⁶⁴⁾

㉔ 설교가 부채 2개를 꺼내는데, 하나는 侍郎 潘錫恩의 글씨로 내게 주었고, 다른 하나는 尙書 蔣祥墀의 글씨로 황파에게 주며 말했다.

“이 부채는 나를 위해 金健翁侍郎[金陽渾]께 전해주십시오.”

황파가 건옹의 詩卷으로 설교의 비평을 부탁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었던 것이다.⁶⁵⁾

㉕ “남창은 일찍부터 친분이 있으나 근래 몇 년은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듣자니, 호관의 편지가 분서에게 있다던데 정말 그러합니까?”

설교가 말했다. “아닙니다. 제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⁶⁶⁾

㉖ 신재식이 10자 되는 큰 종이에 戰과 翼을 쓴 曹匡振의 글씨를 중국으로 가져가 자랑할 만하다고 호기롭게 말한다. ㉗ 임백연이 신재식의 처소에게 발견한 홍현주의 『海居詩鈔』이다. ㉘ 신재식이 한양의 낙사에서 여러 친구들에게 받은 餞別詩軸으로, 중국에서 서문과 발문뿐 아니라 비평까지 받으려 했던 「申翠微太史暫遊詩帖」이다. ㉙ 정환표가 오균의 비평을 부탁했던 김양순의 試卷이다. ㉚ 이봉녕이 안영의 편지를 가져간 사실이 포착된다.

『경오유연일록』에는 글씨(조광진)·문집(『해거시초』, 김양순 시권)·전별시축(「신취미태사잠유시첩」)·편지(안영 편지) 등 다양한 품목이 확인된다. 이 밖에도 많은 척독과 시문 및 선물이 한양에서 북경으로 전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

64) 『경오유연일록』 권, 11월 13일 참조.

65) 『경오유연일록』 권, 1월 28일 참조.

66) 『경오유연일록』 권, 1월 28일 : “曰: 南窓, 曾有素契, 不見今數年. 壺觀, 聞有書在汾西云, 信然耶? 雪橋曰: 未也, 非抵我者耶.”

반면, 중국 북경에서 조선의 한양으로 들어온 척독과 시문 및 선물은 다음과 같다.

㉑ 저녁에 온산 진림이 편지를 부치고 『史梅叔詩集』 5권을 보내왔다.⁶⁷⁾

㉒ 염암이 말했다. “秋史가 羊腸鐵胎葉 몇 종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예전 물건이 이미 부서져 수리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시장에서 구했습니다.”⁶⁸⁾

㉓ 설교가 부채 2개를 꺼내는데, 하나는 侍郎 潘錫恩의 글씨로 내게 주었고, 다른 하나는 尙書 蔣祥墀의 글씨로 황과에게 주며 말했다.

“이 부채는 나를 위해 金健翁侍郎[金陽渾]께 전해주시시오.”

황과가 건옹의 詩卷으로 설교의 비평을 부탁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었던 것이다.⁶⁹⁾

㉔ 즉시 두 폭의 長軸을 펼쳤다. 설교가 직접 짓고 쓴 것으로 한 폭은 황과에게 주었다. 또 담배 2갑은 은색 종이그릇에 담고 湖筆·南墨과 『周易闡要』 1질을 곁들였다. 우경도 부채에다 직접 別章을 써서 주었다.⁷⁰⁾

㉕ “오늘 새벽 游荷 趙公[趙秉龜]과 方蘭生[方義鏞]에게 보낸 편지와 선물은 또한 받았습니까?”

...(중략)...

“洪公成伯[洪爽周]에게 보내는 편지와 선물은 이미 꾸려서 상자 속에 넣었고, 유하에게 전해 주기를 부탁하니, 형이 전해 주신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海居 [洪顯周]가 부채 열 개를 보내 열 사람의 그림을 부탁하였는데, 길에서 하나를 잃어버려 지금 烏木扇으로 배상하여 보냅니다. 도성 문 안에 글씨와 그림에 능한 자는 적지 않지만 구하려면 어렵습니다. 더구나 글씨와 그림에 빼어난 열 명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이름은 각자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⁷¹⁾

67) 『경오유연일록』 곤, 1월 12일 참조.

68) 『경오유연일록』 곤, 1월 18일 참조.

69) 『경오유연일록』 곤, 1월 28일 참조.

70) 『경오유연일록』 곤, 2월 2일 참조.

71) 『경오유연일록』 곤, 1월 18일 참조.

㉑ 왕맹자가 가져온 4책 1질의 책을 주며 말했다.

“보검은 열사에게 준다 하니, 이 책은 오직 현제에게 줄 만합니다.”

즉시 붓을 당겨 책의 표지에 이렇게 썼다.

“劉文清公集. 孟滋가 드림, 鏡活가 소장.”

…(중략)…

“『宋學師承記』 1책을 강남에서 가져왔는데 응당 보내겠습니다.”⁷²⁾

㉒ 내가 또 혼자 가자 감천이 보고 몹시 기뻐하며 얘기하다가 손수 黃石小方
인을 주는데 ‘汪喜孫印’ 4자가 음각되어 있었다.⁷³⁾

㉓ 진림이 임백연에게 선물한 『史梅叔詩集』 5권이다. ㉔ 김정희의 부탁
으로 요함이 시장에서 구한 羊腸鐵胎葉이다. ㉕ 오균이 潘錫恩 글씨의 부
채를 임백연에게 선물라고, 蔣祥墀 글씨의 부채를 정환표에게 주며 김양
순에게 주는 선물로 부탁한 내용이다. ㉖ 오균이 직접 쓴 두 폭의 長軸 가
운데, 하나는 정환표에게 선물로 주고, 다른 하나에다 담배 2갑·호필·남
묵과 『周易闡要』 1질을 임백연에게 선물한다. ㉗ 요함이 趙秉龜와 方羲鏞
에게 보낸 편지와 선물, 洪奭周에게 보내는 편지와 선물, 洪顯周가 부탁한
부채 열 개를 거론한 대목이다. ㉘ 왕희손이 『유문청공집』⁷⁴⁾을 선물하고,
『宋學師承記』 1책을 선물할 것을 약속한 부분이다. ㉙ 왕희손이 ‘汪喜孫印’
을 음각한 黃石小方印을 임백연에게 선물한 내용이다.

『경오유연일록』에는 羊腸鐵胎葉·담배·호필·남묵·부채(潘錫恩 글씨,
蔣祥墀 글씨, 홍현주)·글씨(오균 長軸)·문집(『史梅叔詩集』, 『周易闡要』, 『유
문청공집』, 『宋學師承記』)·도장(汪喜孫印)·편지와 선물(조병구, 方羲鏞,
洪奭周) 등 다양한 품목이 확인된다. 이 밖에도 많은 척독과 시문 및 선물이

72) 『경오유연일록』 곤, 2월 1일 참조.

73) 『경오유연일록』 곤, 2월 2일 참조.

74) 아마도 『劉文清公遺集：附 應制集』을 지칭하는 듯하다. 현재 서울대 중앙도서관
에 1826년(道光 6) 東武劉氏味經書屋에 간행한 劉塘(劉甯의 誤記)의 『劉文清公遺集
：附 應制集』이 소장되어 있다. 17卷 附 3卷 4冊, 1匣으로, 『劉文清公遺集』(1~3책)
과 『劉文清公應制詩集』(4책)이다.

북경에서 한양으로 전해졌을 것이라 판단된다.

넷째, 『상간편』의 저작과 간행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중 지식인 교류의 획기적인 事件이다.⁷⁵⁾

『상간편』은 시체별로 구분하면, 오언고시 21수, 오언율시 20수, 칠언절구 17수, 칠언율시 62수로 칠언율시가 과반을 넘는다. 임백연의 시는 『경오유연일록』에 많은 작품이 남아있는데, 『상간편』과 비교하면 글자의 출입이 보인다. 이는 『경오유연일록』 수록 작품을 수정하여 『상간편』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⁷⁶⁾ 또한 이상적의 시는 『恩誦堂集詩』 권5에 많은 작품이 남아있고, 『상간편』과 동일하다.

또한 『상간편』과 『경오유연일록』은 상호보완적 성격이 강하다. 『경오유연일록』에는 신재식이 여러 시반의 姓字를 隱語로 지은 칠언율시가 있는데,⁷⁷⁾ 그 내용이 매우 난해하다. 그런데 이 작품은 글자의 출입은 있지만 『상간편』에 수록되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⁷⁸⁾ 또한 『상간편』의 저작과 간행에 대한 내용은 『경오유연일록』 1837년 1월 17일에 매우 상세하다.

사행 오는 길에 취미 어른[신재식]이 동행한 사람들의 여러 작품을 거두어 모아서 몇 권을 만들고 사람마다 몇 수씩 선발하여 판각할 계획을 의논하였다. 취미 어른이 실로 그 선발을 주관하여 精選하려 하였는데, 번다한 것을 견어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작품의 많고 적음과 남겨두거나

75) 김영진, 「상간편(相看編)」, 『국학고전 연행록해제』, 한국문화연구소, 2003 ; 「조선후기 중국 사행과 서책문화」,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지형도』, 한양대출판부, 2006 ; 임영길, 「淸 문인 黃爵滋와 朝鮮 문인의 교류-『仙屏書屋初集年記』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64, 2016, p.356 참조.

76) 『경오유연일록』 건, 11월 17일. “皜皜連江雪, 漠漠連天草.” : 『상간편』, 「渡鴨淙江」 제3,4구. “皜皜橫江雪, 漠漠連天草.”

77) 『경오유연일록』 건, 10월 21일. “上使吟示一律, 以一行諸伴姓字爲隱語曰: 駢馬悠悠向薊州, 一聲長笛塞榆秋. 白雲黃鶴樓中詠, 紫氣靑牛關外遊. 壯歲鈞鰲胸海豁, 夕陽飛鷗鬢霜愁. 幸逢舊日蘭臺伴, 笑說文虹遶淇舟.”

78) 『상간편』, 「紀行」. “冠蓋翩翩向薊州, 一聲長笛[鐘阜]塞榆秋. 白雲黃鶴樓頭詠[愚山], 紫氣靑牛關外遊[汾西]. 壯歲鈞鰲[鏡渚]胸海闊, 夕陽飛鷗[黃坡]鬢霜愁. 蘭臺舊伴[芝田]同乘去, 淇上文虹太乙舟[薄船]. [翠微]”

빼는데 있어 여러 논의가 일치하지 않아서 마침내 각 15수를 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작자는 모두 여덟 사람인데, 翠微上使[신재식]·芝田副使[이노집]·鐘阜書狀[조계승]·愚山崔憲秀元度·汾西李鳳寧周卿·黃坡鄭煥杓孟一⁷⁹⁾·鏡活任百淵溥卿⁸⁰⁾·藕船李尙迪惠吉이다. 선발하고서 내게 주어 처음 謄寫하게 하고, 黃樹齋侍郎[황작자]에게 보내어 다시 교정하였다. 수재는 이름이 爵滋인데, 당시 명망이 자자하여 문장과 학술로 저들 신진들은 모두 師長으로 받들었다. 수재도 찌를 부치고 거듭 선발하였고 책머리에 小序를 써서 돌려주었다. 취미 어른은 책 뒤에 발문을 쓰고 일행 중 寫字官[趙鎮龜]에게 명하여 初本을 精寫하게 하고 판각하도록 넘겨주었다.

며칠이 지나서 모든 작업을 마치고 책을 『相看編』이라 이름하였다. 대개 첫 작품은 취미 어른의 시 첫 구절에 '백발로 바라보는 벗의 마음이요.[相看皓首故人情]'라는 말이 있어서 이름한 것이니, 또한 책 속의 여러 사람이 바라보고 잊지 말자는 뜻을 보인 것이다. 韓韻海季卿은 또한 저들 가운데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인데, 책 표지에 제목을 써서 판각하여 부쳤다.

막 글자를 판각할 때 저들 가운데 면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투어 보기를 청하였다. 비록 여러 판본도 두루 미치기가 쉽지 않다. 애당초 판각한 의도는 중국에 널리 알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이번 사행의 여러 同伴이 왕복하며 酬唱을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움이 변하지 않았음을 기록하여 훗날 조선으로 돌아가 때때로 바라보며 길이 친하게 지내자는 뜻이다. 본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비방하고 칭찬하는 사람을 어찌 돌아보고, 또한 어찌 분별하겠는가?⁸¹⁾

79) 孟一 : 원문에는 '□□'으로 되어있는데, 『상간편』을 참고하여 보충한다.

80) 溥卿 : 『상간편』에는 '保卿'으로 되어있다.

81) 『경오유연일록』 곤, 1월 17일. “翠微丈收聚同行諸作, 合爲數卷, 議選各人幾首, 以爲鈔梓之計. 翠微丈實主其選, 必欲精簡者, 爲其汰繁蕪也, 省元費也, 而其於多寡存拔之際, 羣議不一, 未乃定以各選十五首. 作者凡八人, 翠微上使·芝田副使·鐘阜書狀·崔愚山憲秀元度·李汾西鳳寧周卿·鄭黃坡煥杓孟一·任鏡活百淵溥卿及李藕船尙迪惠吉. 旣選, 授余初謄, 轉付黃樹齋侍郎更授. 樹齋, 名爵滋, 時望譎蔚, 以文章學術, 彼中新進, 皆推爲師長者. 樹齋又付籤重選, 而著弁卷小序以還之. 翠微丈追跋卷尾, 令行中寫字官, 精寫初本, 出付劔劒. 捻費若干日而工竣, 命其卷曰『相看編』. 蓋其首篇, 翠微丈詩首句, 有‘相看皓首故人情’之語, 因以名之, 亦欲使卷中諸人相看而示勿忘之意也. 韓韻海季卿, 亦彼中善書者, 書籤刻付. 方其開闢時, 彼中知面者, 爭相求見, 雖屢本未易遍也. 其初意刊板, 非欲廣布大邦也, 亦非爲誘示東人也. 以識今行諸伴, 往還不廢酬唱, 終始不渝歡悞, 他日東歸, 時時相看, 永以爲好之意. 不知本意, 強生毀譽者, 何足恤也? 亦何足辨也?”

애초부터 신재식은 여러 시반들의 작품을 몇 권으로 만들고 사람마다 몇 수씩 선발하여 판각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번다함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자 직접 선발을 주관하여 精選하려 하지만, 작품수와 선발에 의견이 분분하여 각 15수를 선발하기로 결정한다. 선발 후 임백연이 謄寫하고, 황작자에게 보내어 교정을 부탁한다. 그는 부전지를 부치고 거듭 선발하고 小序를 써서 돌려준다. 신재식이 발문을 쓰고 寫字官 趙鎮龜에게 명하여 初本을 精寫하게 하고 판각하도록 넘겨준다. 며칠 만에 모든 작업을 마치고 『상간편』으로 명명한다. 표제는 신재식의 ‘백발로 바라보는 벗의 마음이요.[相看皓首故人情.]’라는 시구에서 유래한 것으로, 책 속의 여러 사람이 바라보고 잊지 말자는 뜻이다. 한운해가 책 표지에 제목을 써서 판각하여 부친다. 『상간편』 간행에 참여한 한운해는 이후 자신의 초상화를 이상적에게 부탁하게 조선 사신 일행의 題贊을 부탁한 바 있다. 이때, 정환표는 절구 1수를 쓰고 임백연은 贊語를 써서 돌려준다.⁸²⁾

당시 『상간편』 간행은 한중 지식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듯하다. 그러한 연유로 임백연은 본래 『상간편』 판각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애써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는 ‘본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비방하고 칭찬하는 사람을 어찌 돌아보고, 또한 어찌 분별하겠는가?’는 언급에서 확인된다. 당시 『상간편』 간행은 한중 지식인들의 논란을 초래한 듯하다. 따라서 임백연은 판각 의도를 밝혀 『상간편』 간행에 대한 논란을 무마하려고 시도한다.

『상간편』은 1833년 동지사행에서 정사 조봉진·부사 박내겸·수행원 최헌수가 수창한 연행시집 『燕槎酬帖』과 관련이 깊을 듯하다. 『연사수첩』은 현전하는 연행시집 가운데 유일하게 번갈아가며 수창한 저작이고, 최헌수가 『연사수첩』뿐 아니라 『상간편』에도 참여한 사실은 주목된다. 아울러 『상간편』은 후대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申佐模는 1860년 冬至正使로 연행하는 申錫愚에게 보낸 시에 신재식의 연행을 거론한다. 이어 “상서의

82) 『경오유연일록』 근, 1월 17일. “韓韻海季卿, 亦彼中善書者, 書籤刻付.”

이번 행차에 응당 『상간속집』이 있을 것이니, 사방에서 전하고 베껴 써서 생각건대 다시 종이 가 귀해질 겁니다.[尙書今行, 定有相看續集, 四方傳寫, 想更紙貴.]”라고 덕담을 보낸다.⁸³⁾ 이는 신석우가 신재식의 조카로 여행에서 신재식의 『상간편』과 같은 저작을 기대한 대목이다.

IV. 맺음말

한중 지식인의 교류는 1766년 홍대용이 북경에서 항주의 문인들과 만나 친애지기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한 이후로 점차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한중 지식인 교류는 여행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과 여행 인편을 매개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더욱이 여행마다 참여할 수 없는 처지라, 여행 인편을 매개한 간접적 교류가 대부분이다.

『경오유연일록』은 당시 한중 지식인 교류의 단면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당시 진림의 언급에 따르면, 조선 사신을 명사로 여기고 교류를 바라는 중국 지식인의 상황과 어사의 참주 문제로 조선 사신을 꺼리는 당시 분위기가 고스란히 포착된다. 아울러 조선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혐의와 간극은 없으니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는 당시 중국 지식인이 조선 사신을 명사로 여기고 왕래하며 교분을 맺기를 바라며 각별하게 대우했음을 보여준다.

첫째, 한중 지식인 교류에서 만남을 주선하고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김정희와 강진의 역할이 감지된다. 임백연은 김정희와 강진의 소개로 중국 지식인의 존재를 파악하고, 강진과 친분이 있던 강문탁과 진림을 매개로 그들과의 교류를 시도한 셈이다. 특히, 강문탁과 진림 같은 인물은 조선 사신이 중국 지식인과 교류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83) 申佐模 『澹人集』 권5, 「贈海藏申尙書[錫愚]之燕」 참조.

둘째, 당시 임백연이 연행 노정에서 교유한 중국 인물은 총 20여 명인데, 앞서 언급한 강문탁과 진림을 제외하더라도 吳筠·姚涵·汪喜孫 등과 친분이 각별하고 교류도 활발하다. 특히, 『상간편』의 간행에는 黃爵滋·韓韻海 등이 직접 참여한다. 오균은 詩草 1권을 보내 서발을 부탁하고, 자신의 초상화인 「海天虛舟圖」의 제화시를 부탁한다. 요함은 김정희의 금석학 자료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이상적의 부탁으로 양장철태엽을 시장에서 구해서 전달한 정도로 조선 지식인의 동향과 교류에 매우 민감하다. 왕희손은 임백연을 매우 각별하게 대우한 바, 『유문청공집』에다 ‘劉文淸公集, 孟滋贈, 鏡浯藏’이라 친필로 써서 주고, ‘汪喜孫印’ 4자가 음각된 黃石小方印을 선물한다.

셋째, 당시 연행 인편에 한중 지식인의 척독과 시문 및 선물이 상당수 왕래한 정황이 포착된다. 한양에서 북경으로 가져간 품목에는 글씨(조광진)·문집(『해거시초』, 김양순 시권)·전별시축(「신취미태사잠유시첩」)·편지(안영 편지) 등 다양한 품목이 확인된다. 반면, 북경에서 한양으로 들여온 품목으로 羊腸鐵胎葉·담배·호필·남목·부채(潘錫恩 글씨, 蔣祥暉 글씨, 홍현주)·글씨(오균 長軸)·문집(『史梅叔詩集』, 『周易闡要』, 『유문청공집』, 『宋學師承記』)·도장(汪喜孫印)·편지와 선물(조병구, 方羲鏞, 洪奭周) 등이다. 이 밖에도 많은 척독과 시문 및 선물이 다양한 방법으로 왕래한 되었을 듯하다.

넷째, 『상간편』의 저작과 간행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중 지식인 교류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당시 연행 노정에서 수창한 신재식·이노집·조계승·이봉녕·최헌수·정환표·임백연·이상적 등 8명의 시 15수씩을 선발하여 총 27제 120수를 북경에서 목판본으로 『상간편』을 간행한다. 당시 황작자는 교정뿐 아니라 小序를 쓰고 한운해는 書籤을 써서 판각에 부친다. 당시 『상간편』 간행은 한중 지식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듯하다. 그러한 연유로 임백연은 본래 판각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애써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는 ‘不知本意, 強生毀譽者, 何足恤也, 亦何足辨也?’는 언급에서 확인된다.

〈參考 文獻〉

姜 覲, 『看羊錄』.
 姜世晃, 『豹菴遺稿』.
 金景善, 『燕轅直指』.
 南太良, 『燕行雜稿』.
 申在植 등, 『相看編』.
 申佐模, 『澹人集』.
 任百淵, 『鏡活遊燕日錄』.
 任相元, 『恬軒集』.
 任 玼, 『卮齋遺稿』.
 朴來謙 등, 『燕槎酬帖』.

간송미술관, 『간송문화』 71,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06.
 강경훈, 「연행록(燕行錄)」, 『국학고전 연행록해제』, 한국문학연구소, 2003.
 강경훈, 「연행잡고(燕行雜稿)」, 『국학고전 연행록해제』, 한국문학연구소, 2003.
 김영죽, 「19세기 檢書官 對山 姜潛의 詩자료에 관하여-자료검토와 교유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52, 한국한문학회, 2013.
 김영진, 「경유유연일록(鏡活遊燕日錄)」, 『국학고전 연행록해제』, 한국문학연구소, 2003.
 김영진, 「상간편(相看編)」, 『국학고전 연행록해제』, 한국문학연구소, 2003.
 김영진, 「조선후기 중국 사행과 서책문화」,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지형도』, 한양대출판부, 2006.
 김홍매, 「晩晴 문인 黃韻滋와 조선 연행사」, 『국문학연구』 34, 국문학회, 2016.
 藤塚鄰 지음, 藤塚明直 엮음, 윤철규 등 옮김, 『秋史 金正喜 研究: 淸朝文化 東傳의 研究』, 과천문화원, 2009.
 박철상, 「조선시대 금석학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박철상, 「추사 김정희의 금석학연구: 역사고증적 측면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박철상, 『나는 옛것이 좋아 때론 깨진 빗돌을 찾아다녔다: 추사 김정희의 금석학』, 너머 북스, 2015.
- 박향단, 「葉志誥와 19세기 초 한중 문인의 교류」, 『국문학연구』 33, 국문학회, 2016.
-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中土壽洪大容手札帖—중국 선비가 홍대용에게 보낸 편지와 시문』, 송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2016.
- 유 정, 「汪喜孫과 朝鮮文人の 往來 尺牘에 대한 고찰」, 『대동한문학』 37, 대동한문학회, 2012.
- 이춘희, 『19世紀 韓·中 文學交流: 李尙迪을 중심으로』, 새문사, 2009.
- 임백연 지음, 부유섭·최식 옮김, 『국역 경오유연일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7.
- 임영길, 「19세기 전반 연행록의 특성과 朝·淸 문화 교류의 양상」, 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7.
- 임영길, 「任百淵의 『鏡語遊燕日錄』 연구」, 『中國의 學術·文學과 韓國漢文學』 발표 자료집, 2016.
- 임영길, 「淸 문인 黃爵滋와 朝鮮 문인의 교류—『仙屏書屋初集年記』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64, 한국한문학회, 2016.
- 최 식, 「연행 지식·정보의 수집·정리 및 확대·재생산—연행록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75, 동방한문학회, 2018.
- 최 식, 「임백연과 《경오유연일록》」, 『국역 경오유연일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7.
- 최 식, 「韓中 知識人 交流와 記錄—洪大容과 嚴誠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Abstract

Yeonhaeng (Travel to Yanjing) of 1836 and 『Gyeongoyuonilrok』 - Contents and Reality of Exchange between Intellectuals in Joseon and China -

Choi Sik*

The exchange of intellectuals in Joseon and China had gradually expanded after Hong Dae-yong met the literary men of Hangzhou in Beijing in 1766 to enter into the Cheonaejigi (special friend in far distance away). In general, the exchange of intellectuals in Joseon and China was made in direct method through Yeonhaeng and indirect method through the agency of a person. Furthermore, it is not possible to participate in Yeonhaeng every time that most cases involved indirect exchange through the agency of a person.

『Gyeongoyuonilrok』 displays the details on the aspect for the exchange of intellectuals in Joseon and China at the time. According to the statements of Jin Lim of the time, it displays the atmosphere of the time for the situation of China that desires the exchange with envoys of Joseon and yet to be unwilling to accept the envoys of Joseon with the tyranny of Eosa (royal emissary). Furthermore, it specifically requested not to misunderstand since Joseon had no suspicion and estrangement as it wa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This fact demonstrates that the intellectuals of China at that time considered the Joseon's envoys as well-known scholars to treat them with special privilege with the hope of communicating and establishing relationships.

First, the roles of Kim Jung-hee and Kang Jin were sensed as they carried out the bridging role as well as establishing the exchange relations for intellectuals in Joseon and China. Looking into the case of Im Baek-yeon, it is considered to attempt the exchange with Kang Jin-bo and Jin Lim who had the acquaintance with Kang Jin after leaning

* Senior Researcher of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Dept.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choicesik@hanmail.net

the presence of Chinese intellectuals with the introduction of Kim Jung-hee and Kang Jin. In particular, people like Kang Jin-bo and Jin Lim are considered to carry out significant roles for the Joseon's envoys to exchange with the Chinese intellectuals.

Second, the Chinese personnel that Im Baek-yeon met in the Yeonhaeng route would be around 20 persons, and even if Kang Jin-bo and Jin Lim who are mentioned earlier are excluded, there were close relations with Oh Gyun, Yo Ham, Wang See-Son with active exchanges. It displays not only the exchange of chidu (letters and mails), poetry and literacy and presents, but also the contents and reality of the exchange of intellectuals in Joseon and China to the fullest. In addition, in the publication of 『Sangganpyeon』, Hwang Jak-ja, Han Wun-hae and others were personally participated.

Third, the personal agency in Yeonhaeng displays the scenes of significant exchange of chidu (letters and mails), poetry and literacy and presents of intellectuals in Joseon and China. Yeonhaeng of 1836 had the indirect exchange and its appearance can be confirmed in 『Gyeongyueonilrok』.

The items taken from Hanyang to Beijing show writing (Cho Gwang-jin), literary collection (『Haegeosicho』, Kim Yang-soon Sigwon (answers in national examination), Jeonbyeolsichuk (『Sinchwimitaesajamyusicheop』), letter (letter of An Young) and others. On the other hand, for the items imported from Beijing to Hanyang, there are a variety of items with yangjangcheoltaeyeop, cigarette, brush, ink, folding fan (Ban Seok-eun - writing, Jang Sang-ji - writing, Hong Hyun-joo) writing (Oh Gyun Jang Chuk), collection of literature (『Samaesuksijip』, 『Juyeokcheonyo』, 『Yumuncheongongjip』, 『Songhaksaseunggi』), seal impression (‘Wangheesonin’), letter and gift (Cho Byung-goo, Bang Hee-yong, and Hong Seok-joo) and others.

And, fourth, the writing and publication of 『Sangganpyeon』 was a remarkable incident for exchange of the intellectuals in Joseon and China. From the Yeonhaeng travel of the time, 15 poems from 8 persons were selected to publish a total of 27-je 120-soo on 『Sangganpyeon』 on the wooden block copy in Beijing. At that time, Hwang Jak-ja and Han Wun-hae also participated in the publication of 『Sangganpyeon』 that Hwang Jak-ja worked on editing as well as writing Soseo while Han Wun-hae wrote the book cover to place on the engraving plate. At that time, the publication

of 『Sangganpyeon』 seemed to attract attention of intellectuals in Joseon and China. Because of such an attribute, Im Baek-yeon requested to clarify its innate intent of engraving plate and not to render any excessive implication. It is confirmed in the statement of 'Buljibonui, Gangsaengchweyeja, Hajokhyulya, Yeokhajokbyeonya?'. In addition, 『Sangganpyeon』 for Dongjisahaeng in 1833 had profound relations to 『Yeonsa suceop』, a poetry collection on Yeonhaeng that was advocated by Jeongsa (Head Official) Cho Bong-jin, Busa (Deputy Official) Park Rae-gyeon and entourage Choi Heon-soo. Furthermore, 『Sangganpyeon』 influences on later generations that Shin Jwa-mo, in his Yeonhaeng of 1860 as Dongjijeongsa, to send his well-wishing remark of "Sangseogeumhaeng, Jeongyusangganskjip, Sabangjeonsa, Sanggyeongjigwi." in his poem to Shin Seok-woo. It is deemed to be the passage expected for writing work as in 『Sangganpyeon』 of Shin Jae-sik in Yeonhaeng since Shin Seok-woo was a nephew of Shin Jae-sik.

【Key words】 Im Baek-yeon, Yeonhaeng, Exchange, 『Gyeongoyueonilrok』, Kim Jeong-hee, Kang Jin, Oh Gyun, Yo Ham, Wang Hee-son, 『Sangganpyeon』

투고일 : 11월 15일, 심사완료일 : 12월 02일, 게재확정일 : 12월 17일

